

매우회, 버마 아웅산 테러 30주년 추모행사



옛 전남매일신문사(현 광주일보사) 사원들의 모임인 '매우회' 회원들이 지난 9일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30주년을 맞아 당시 숨진 심상우 전 전남매일신문사장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가졌다. <사진>

김원욱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과 심 전 사장의 3남인 개그맨 심현석씨 등은 이날 오전 동작동 현충원 국가유공자 제1묘역 13호에 안장된 심 전 사장의 묘소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헌화와 분향, 경례 순으로 참배했다.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는 1983년 10월9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 첫 방문국인 버마(현 미얀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일어난 강력한 폭발 사건으로 당시 민정당 총재비서실장이었던 심 전 사장을 비롯한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원욱기자 kimyh@kwangju.co.kr

진도노인복지관 '아름다운 은빛 축제'



이랜드복지재단(이사장 이경준)이 운영하는 진도노인복지관(관장 강주호)은 최근 이동진 진도군수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은빛 축제'를 개최했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목포기독병원, 중소병원협 축구대회 우승



목포기독병원 축구팀이 최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전국중소병원협회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지난 2012년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남농구협회, 체육인재육성기금 500만원



전남농구협회(회장 강형구)는 10일 전남도체육회 제248차 이사회에서 전남체육 인재육성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문기호(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봉영순씨 차남 다현군 정재성(강진고등학교 교장)·강순희씨 딸 유란양=12일(토) 낮 12시 30분 호남신학대학교 대강당.
- ▲정기채·육순임씨 장남 천혁군 강영기(전 광주시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박길자씨 장녀 소리양=12일(토) 오후 1시20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12층 컨벤션.
- ▲김성희·정해숙씨 장남 상근군 배기(경주배서대총회 이사·광주중진회 부회장)·조영희씨 차녀 수은양=12일(토) 오전 11시 아름다운컨벤션 1층 샤넬홀(구하이트 예식장).
- ▲임유근·양연자씨 장남 호성(해남군청)·김병준·이경순씨 차녀 채연(우정정보산업본부)양=12일(토) 오후 1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예식홀.
- ▲임정복(前 광산구청 정보처리과장)·김정순씨 장남 태현군 이문태·

- 김금란씨 장녀 해진양=12일(토) 오전 11시 아이리스웨딩홀 2층 헤라홀.
- ▲김기식(보성군청 주민복지실장)·안금숙씨 아들 우재(한국 기상산업진흥원)·최순복(전 인천남동시법공단 부부장)·송희순씨 딸 현정양=20일(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피로연=11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 보성녹둔한우식당.

동창동문회

- ▲제21회 월평초교 총동문(총동문회장 정창욱) 한마을축제=12일(토) 오전 10시 월평초등학교 모교 운동장.
- ▲광주분당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장운기)=12일(토) 오전 10시 30분 송정중앙초등학교 010-3613-2283.
- ▲제26회 재광목포 문태중·고 가족한마당축제(회장 윤남식)=12일(토) 오전 10시 010-3642-7050.
- ▲광주 송일고 42회 20주년 기념행사=12일(토) 오후 6시 광주 출리데

이인호텔(3층 컨벤션 1번홀) 017-604-8761(양관운).

종친회

- ▲진주강씨 광주전남 총회(회장 강원구) 운영위원회의 개최=12일(토) 오전 11시 종회사무실 3층 062-228-3368.
- ▲경주배서 무안종친회(회장 배서준)=13일(일) 오전 11시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청천사.

일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 ▲광주초등학교 및 무등중학교 학부모 대상 꿈을 키워주는 부모 되기 교육 안내=16일(수) 오전 10시~12시 광주초등학교 교육복지실, 주제는 '반항일까요? 사춘기일까요?' 반항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강

본적 독도로 바꾼 강진출신 해양연구기지 김운배 박사

“동해·독도 연구 매진 국제사회에 알릴 것”



“독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대부분 국민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뿐이에요. 독도가 왜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죠. 현재 독도를 우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안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운배(42) 박사의 독도사랑은 남다른데, 해양물리를 전공한 김 박사는 현재 동해연구소에서 동해표층 온도의 변화, 연안 환경, 해류의 흐름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울릉도 외해가우리 양식장 관련 논의를 위해 제주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을 찾기도 했다.

강진군 도암 만덕리 출신인 그는 본적을 바꿨다. 새로운 본적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4번지다. 독도를 연구하는 박사에서 아예 독도주인이 된 것이다. “최근 완공된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

지에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제 울릉도에 사는 주민으로 동해와 독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생각입니다.”

바다를 좋아해 동해를 연구하던 청년이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김 박사가 독도를 좀 더 알아야겠다고 다짐한 사건은 바다가 아니라 산에서 일어났다.

지난 1997년 지리산 장터목 산장에서 우연히 일본인 학생을 만났다. 힘든 산행에서 만난 이와 국적을 뛰어 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서툰 한국어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표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 종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했던 그는 독도가 왜 일본 영토인지 세계지도를 펼쳐며 차분한 어조로 설명해 나갔다. 또박또박 ‘다케시마’라고 발음하며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설명하는 일본인의 진지한 모습에 그는 말문이 막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리산에서 일본 학생과의 만남 후 뭔가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1998년 당시 유행하던 PC통신에서 ‘독도사랑 동호회’를 만들고 초대회장까지 지냈다. 독도라는 소재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이를 만났고, 당시 부산지역 회장으로 활

동하던 지금의 아내와도 인연을 맺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동해와 독도 연구에 매진했다. 독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은 정작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 그래서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동해와 독도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부모님이 물려 주신 건강할 신체 덕분에 선천적으로 뱃살이 많지 않다는 그는 독도를 연구하며 100여 차례나 독도행 배에 올랐다. 그는 독도가 가진 역사적, 지형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갯벌이 갈매기와 겨울에 눈 쌓인 모습이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전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독도를 지키기 위해 그는 모든 이가 생활 속에서 독도에 관심을 갖자고 한다.

“언론에서는 광복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독도 관련 보도를 내보내죠. 그런데 평소에도 기획기사를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가가 독도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가수가 독도에 관한 노래를 부르며 평소에도 관심을 갖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아름다운 독도를 앞으로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박지성, 맨유 출신 위대한 국가대표 25인



박지성(32·PSV에인트호벤)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배출한 위대한 국가대표 25명에 선정됐다.

맨유는 지난 9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까지 맨유를 거친 선수 가운데 각국 국가대표 25명을 발표하면서 박지성을 17번째 선수로 소개했다.

이 기사에서 맨유는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한결같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박지성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그리스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골을 넣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월드컵 3회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맨유는 이어 “한국은 우루과이에 저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맨유가 배출한 걸출한 스타 박지성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고 치켜세웠다. 박지성 외에 폴 스콜스(잉글랜드), 조지 베스트(북아일랜드) 등 맨유에 몸담았던 선수들의 국가대표 시절 활약상이 이 기사를 통해 소개됐다. /연합뉴스

반결용 코레일 광주본부장 취임



제4대 코레일 광주본부장에 반결용(56) 충북본부장이 10일 취임했다.

신임 반 본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철도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교통수단”이라며 “무엇보다도 고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특히 “철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과 수려한 남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등 철도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발전이 철도수요 증진과 연계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출신인 반 본부장은 197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총무처에 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코레일 기술본부 시설기술단장·수도권 동부본부장·충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자랑스런 동신인'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이 2013년 제10대 자랑스런 동신인 상을 수상했다.

광주 동신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이준열)는 오는 13일 열릴 '제24회 광주 동신고등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제10대 자랑스런 동신인 상 시상식을 열고 2만여 동문의 이름을 올려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제6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광주발전과 지방 의정활동의 모범이 되어온 점과 동신고 동문의 화합과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한국 세계평화작가, 조선대 객원교수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은 자체 고안한 한글 글자체로 세계평화지도도를 그리는 한한국 세계평화작가(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를 초빙객원교수로 임명했다.

한씨는 20년에 걸쳐 6종의 새로운 한글서체를 개발해 34개 국가 '한글 세계평화지도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

2008년에 UN본부 22개국 대표부와 프랑스, 북한 등에 수석위원의 사비를 들여 평화지도도를 기증해왔으며, UN이 인정한 세계평화작가로 불리고 있다.

한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 '2013 한글근간지 문화예술행사' 공모에 선정돼 '567돌 한글날'을 기념하는 특별전시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광장에서 최근 개최했다. /최희종기자 chae@

다 주고 떠난 40대 택배아저씨

뇌사상태 목포 최옥남씨, 장기·조직 기증

심장마비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40대 택배사무소 직원이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주인공은 지난 9일 눈을 감은 목포시 최옥남(48)씨.

10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4일 직장인 택배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각한 뇌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다.

최씨의 유족은 평소 나눔과 선행을 적극 실천해온 고인의 뜻에 따라 지난 9일 장기와 인체조직을 모두 기증했다. 고인의 장기는 환자 5명에게 이식됐고 뼈, 피부(등 부위), 연골 같은 인체조직도 기증됐다.

최씨가 기증한 인체조직은, 피부조직을 이식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 화상환자나 뼈수술 환자 등에 쓰이게 된다. 자신의 몸을 아낌 없이 주고 떠난 최씨의 시신은 화장돼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kwangju.co.kr

최씨의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평소 기증의 뜻을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사실 기증에 동의하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어려운 결정 후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이 편안해보여 동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박창일 이사장은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선택”이라며, “성실한 삶의 마지막에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나주 금성원에 도서 1060권

신한카드 광주지점(지점장 한중우)은 10일 나주시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원에서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도서 기증은 지난 5월부터 시행해온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적립한 도서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의 정성을 보태 이뤄진 것으로 총 1060권의 도서가 전달됐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입사원의 회사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만든 것으로 멘토멘티 커플이 광주에서 서울 충무로 본사까지 395km를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3km당 도서 1권을 적립하는 행사다. 현재까지 총 330여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신한카드 광주지점 직원들이 멘토멘티 커플과 함께 도서 1060권을 금성원에 기증했다.

부음

▲이근영씨 별세 광호·광일·기철·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지지 서비스=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제공(주 5일 운영) 062-233-0468.

▲충순홍씨 별세 석표·기표·현표·금자·명란씨 부친상=발인 11일(금)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조희창씨 별세 양정·이현씨 부친상=발인 1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401호故한국주님(남/88세) 子/子婦: 한지원/최금자, 지호/최영숙, 지훈/임수진 女/女婦: 한미영/김순식, 경화/영영, 선화/최현민 未亡人: 박은서 •호 실: 401호 •발 인: 10월 11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102호故김석중님(남/48세) 子: 김의관 女: 임의영 未亡人: 박은서 •호 실: 102호 •발 인: 10월 12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101호故황의영님(남/75세) 子/子婦: 황치연/정기옥, 준인/류현숙 女/女婦: 황희숙/강정길, 화정/조현림, 선화/조영일 喪主: 임성현, 국희/한진수 未亡人: 정봉순 •호 실: 101호 •발 인: 10월 11일 •장 지: 화순이향선영 •연락처: 227-4385	402호故유성철님(남/72세) 子/子婦: 필은/박은희, 중복 女/女婦: 필순/주정노 未亡人: 나승임 •호 실: 402호 •발 인: 10월 11일 •장 지: 화순효성주안 •연락처: 227-4314

마음까지 편안함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